

제3장
2017 장성군 사회지표
요약

1 인구 부문 요약

1. 인구 구성

- ▶ 장성군의 인구는 2016년 기준 4만 7,218명 (남자:23,974명, 여자:23,244명)으로 전년(4만 7,456명-남자: 24,082명, 여자: 23,374명) 대비 238명 감소함
- ▶ 2016년 세대수는 21,557세대로 전년(21,529세대) 대비 28세대 증가함
- ▶ 2014년에서 2015년은 총인구수는 26명 증가했고, 반면에 세대수는 237세대 증가함

| 연도 | 주민등록인구 | 세대수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11년 | 47,500 | 22,000 |
| 2012년 | 47,415 | 21,529 |
| 2013년 | 47,404 | 21,557 |
| 2014년 | 47,430 | 21,557 |
| 2015년 | 47,358 | 21,529 |
| 2016년 | 47,218 | 21,55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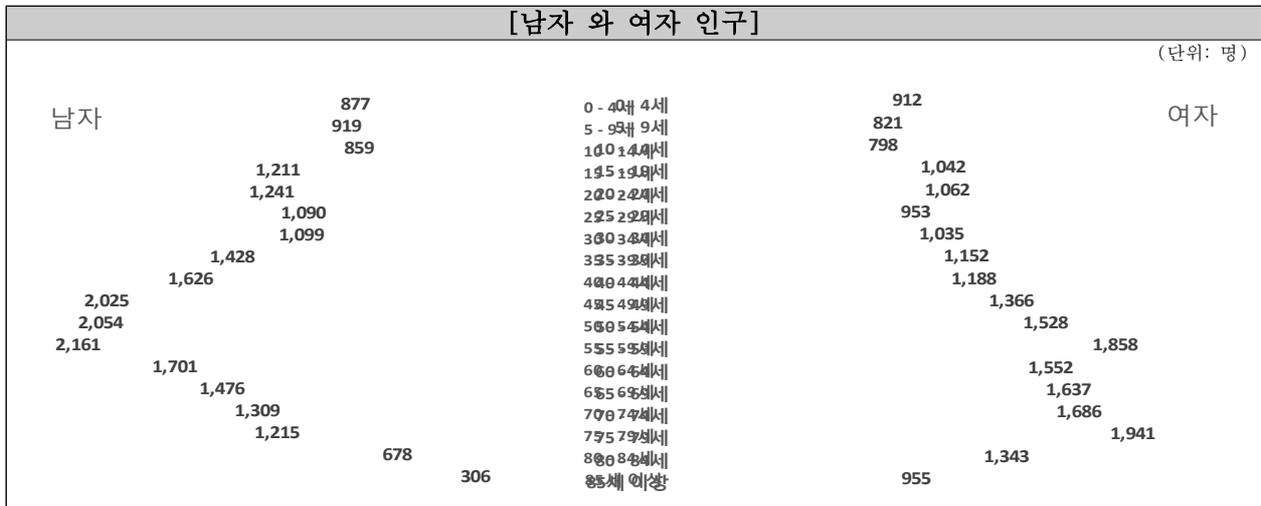
2. 외국인 인구

- ▶ 2016년 장성군의 외국인 수는 1,114명으로 2015년 대비 18명(1.6%) 증가함
- ▶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수는 계속해서 1,100명 내외로 미세하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
- ▶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자 외국인 인구는 700명 내외, 여자 외국인 인구는 400명 내외로 일정하며 2016년 기준 남자 외국인 인구가 여자 외국인 인구에 비해 284명 더 많음

| 연도 | 남자 | 여자 | 외국인수 |
|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2011년 | 795 | 375 | 1,170 |
| 2012년 | 732 | 383 | 1,115 |
| 2013년 | 759 | 379 | 1,138 |
| 2014년 | 688 | 397 | 1,085 |
| 2015년 | 688 | 408 | 1,096 |
| 2016년 | 699 | 415 | 1,114 |

3. 연령 및 성별인구

- ▶ 14세 이하 인구의 구성비는 4% 이하의 비율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구성비를 보임
- ▶ 4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구성비는 7% 이상의 비율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임
- ▶ 64세 이하 연령층 중 “0~4세” 연령층에서 성비가 96.2%로 여자 성비가 많은 결과를 보이며 65세 이상 연령층 이상의 높은 연령층일수록 성비가 100% 아래로 여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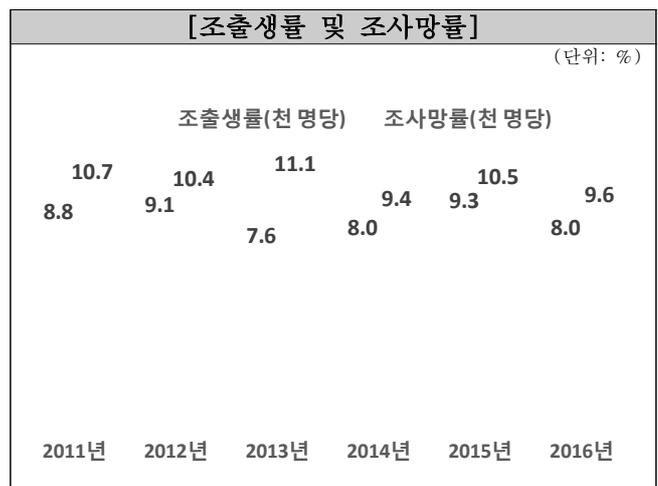


4.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

- ▶ 전년도에 비해 부양비는 0.3%p, 노령화지수는 8.8%p 증가함
- ▶ 2016년 총부양비는 62.5%, 유소년부양비 18.3%, 노년부양비 44.2%, 노령화지수 241.9%로 나타남
- ▶ 2011년도부터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노년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의 2배의 %p만큼 차이가 남

5. 출생 및 사망

- ▶ 2016년 출생건수는 375건이고 사망건수는 450건임
- ▶ 2015년 대비 출생건수가 65건 감소함
- ▶ 출생성비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89.4%로 가장 낮은 값을 보임
- ▶ 자연증가건수는 -75이고 자연증가율은 -1.6명임
- ▶ 2015년 대비 자연증가건수는 22건 감소하였고 자연증가율은 0.5%p 감소함



6. 혼인 및 이혼

- ▶ 2016년 혼인건수는 151건으로 2015년에 비해 39건 감소함
- ▶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2016년에 혼인건수는 151건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조혼인율 또한 3.2%로 가장 낮은 값을 보임
- ▶ 2015년의 이혼건수인 103건에 비해 2016년에는 절반 정도가 감소한 51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이혼율은 1.1%로 2015년 대비 절반의 %p만큼 감소함

| [혼인 및 조혼인율] | | | | | | | [이혼 및 조이혼율]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(단위: 건,%) | | | | | | | (단위: 건,%) | | | | | | |
| 250.0 | | | 223.0 | | | 6.0 | 120.0 | 114.0 | | | | 3.0 | |
| 200.0 | 199.0 | 184.0 | 184.0 | 190.0 | | 5.0 | 100.0 | | 102.0 | | 103.0 | 2.5 | |
| 150.0 | | 4.3 | 4.0 | 4.0 | 4.9 | 4.0 | 80.0 | 2.5 | | 89.0 | 85.0 | 2.0 | |
| 100.0 | | | | | 4.1 | 3.2 | 60.0 | | 2.2 | 1.9 | | 2.2 | |
| 50.0 | | | | | | 3.0 | 40.0 | | | 1.9 | | 51.0 | |
| 0.0 | | | | | | 2.0 | 20.0 | | | | | 1.1 | |
| | | | | | | 1.0 | 0.0 | | | | | 0.5 | |
| | | | | | | 0.0 | | | | | | 0.0 | |
|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
| | 혼인건수 | | | 조혼인율 | | | | 이혼건수 | | | 조이혼율 | | |

7. 인구이동

- ▶ 2016년 총전입은 5,692명으로 작년 대비 568명 감소하였고 총전출은 5,883명으로 작년 대비 254명 감소함
- ▶ 2016년 순이동은 -191명으로 작년 순이동인 123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
- ▶ 시도내 인구이동과 시도간 전입, 전출은 전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함

2 장성군 사회지표 부문별 요약

1. 가구·가족

- ▶ 함께 사는 부부의 2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「1시간 이상」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군민들은 「형편이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」 를 가장 선호하며 「부모자식간의 당연한 의무」 가 가장 주된 이유임
- ▶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 「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」 를 가장 선호함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녀의 수는 평균 2.6명으로 나타남

| [부모와 동거 희망여부] | | | | | [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]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단위: %) | | | | | (단위: %) | |
| 39.4 | | | | |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46.8 | |
| 31.7 | | | | | 임신출산 지원확대 13.2 | |
| 15.4 | | | | |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8.9 | |
| 8.9 | | | | | 유연근무제 확산 6.9 | |
| 4.6 | | | | |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8.7 | |
| 8.9 | | | | |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3.7 | |
| 4.6 | | | | | 출산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5.6 | |
| 8.9 | | | | |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4.6 | |
| 함께 살고 싶지 않다 | 가능하면 함께 살고 싶지 않다 | 보통이다 | 형편이 되면 함께 살고 싶다 | 매우 함께 살고 싶다 | | |

2. 소득·소비

- ▶ 군민 3명 중 1명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「100-200만원 미만」, 주된 수입원은 「근로소득 및 사업소득」 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의 5명 중 1명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「200만원 이상」 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의 절반은 전통시장을 이용함
- ▶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「시장시설 현대화」 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

| [가구주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]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(단위: %)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남자 | 여자 | 장성군 | | |
| | | | | | 41.5 | 37.8 | 34.6 | | |
| | | | | | 16.4 | 21.7 | 26.9 | | |
| | | | | | 6.1 | 10.3 | 13.6 | | |
| | | | | | 3.0 | 13.3 | 17.5 | | |
| | | | | | 3.0 | 14.3 | 11.5 | | |
| | | | | | 3.0 | 4.8 | 7.7 | | |
| | | | | | 3.0 | 5.9 | 1.4 | | |
| | | | | | 3.0 | 3.6 | 2.5 | | |
| | | | | | 3.0 | 0.0 | 0.6 | | |
| | | | | | 3.0 | 0.4 | 0.0 | | |
| | | | | | 3.0 | 0.0 | 2.2 | | |
| | | | | | 3.0 | 1.7 | 0.8 | | |
| | | | | | 3.0 | 0.0 | 0.0 | | |
| 50만원 미만 | 50~100만원 미만 | 100~200만원 미만 | 200~300만원 미만 | 300~400만원 미만 | 400~500만원 미만 | 500~600만원 미만 | 600~700만원 미만 | 700만원 이상 | |

3. 노동

- ▶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「적극적인 기업 유치」와 「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」을 선호함
- ▶ 구직활동 시 필요한 지원으로 「구직비용 지원」을 가장 선호함

| [청년일자리 창출 대책] | | [구직활동 지원]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(단위: %) | | (단위: %) | | | | |
| 산업단지 등 비즈니스 공간 조성 | 4.2 | 42.2 | | | | |
| 적극적인 기업유치 | 34.7 | | | | | |
| 청년창업 지원 | 13.1 | 20.7 | | | | |
|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| 21.1 | 20.1 | | | | |
|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지원 | 5 | 9.0 | | | | |
|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| 3.9 | 5.7 | | | | |
| 청년 고용 할당제 | 4.9 | | | | | |
|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| 11.5 | | | | | |
| | | 자기소개서 작성 | 구직비용 | 구직지원 공간 | 면접 준비 | 구직 상담 |

4. 교육

- ▶ 군민 2명 중 1명은 평생교육을 받았거나 희망함
- ▶ 평생교육으로 「직업 및 업무관련」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함
- ▶ 타 지역 진학의 의향 이유로는 「대도시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서」가 가장 높음

| [향후 희망 교육 프로그램] | | [타지역 진학 사유]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(단위: %) | | (단위: %) | |
| 컴퓨터 | 18.5 | 주변에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| 14.4 |
| 직업 및 업무관련 교육 | 24.4 | 통학이 불편해서 | 11.3 |
| 사회봉사 관련교육 | 4.4 | 교육시설이 안 좋아서 | 5.7 |
| 건강관련 교육 | 18.0 | 장학금 등 지원이 부족해서 | 0.5 |
| 문화, 교양 | 14.3 |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| 21.9 |
| 스포츠, 레저 | 14.9 | 좋은 사교육 시설이 없어서 | 8.9 |
| 전통기능, 문화 | 2.3 | 좋은 대학으로 진학이 어려워서 | 9.5 |
| 가사,가족, 자녀 관련 교육 | 1.1 | 대도시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서 | 25.1 |

5. 보건 · 의료

- ▶ 군민 7명 중 1명은 흡연,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「스트레스」 와 「습관」 으로 나타남
- ▶ 군민 2명 중 1명은 음주, 금주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「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」 로 나타남
- ▶ 필요한 보건서비스로는 「건강진단 서비스」 를 가장 선호함
- ▶ 군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「암」 , 걱정하는 주된 이유는 「의료비 부담」 과 「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」 로 나타남

| [연령별 흡연비율 및 개비] | | | | | | | [금연이 어려운 이유]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(단위: %) | | | | | | | (단위: %) | |
| | 피운다 | 개비(평균) | | | | | | |
| 30.0 | 15.0 | 15.4 | 16.2 | 18.0 | 스트레스 때문에 | | | 51.8 |
| 25.0 | | 27.4 | 12.9 | 16.0 |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| | | 5.6 |
| 20.0 | 11.7 | 24.0 | 12.4 | 14.0 | 금단증세가 심해서 | | | 5.9 |
| 15.0 | 19.5 | | | 10.0 |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| | | 36.0 |
| 10.0 | | | 9.9 | 8.0 | | | | |
| 5.0 | | | 7.8 | 6.0 | | | | |
| 0.0 | 5.1 | | | 4.0 | | | | |
| | | | | 2.0 | | | | |
| | | | | 0.0 | | | | |
| | 15-29세 | 30-39세 | 40-49세 | 50-59세 | 60세 이상 | 65세 이상 | | |

6. 환경

- ▶ 군민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를 체감
- ▶ 체감하는 주된 이유로는 「지속적 가뭄, 폭염, 폭한」 으로 나타남

| [기후변화 체감정도] | | [기후변화 체감이유]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(단위: %) | | (단위: %) | |
| 거의 체감못함 5.6 | 전혀 체감못함 1.4 | 지속적 가뭄, 폭염, 폭한 | 46.1 |
| | | 국지성 호우, 폭설 | 21.1 |
| | | 오염에 따른 공기 질 변화 | 21.7 |
| | | 농작물의 성장과 재배작목 변화 | 10.3 |
| | | 해수면 상승 | 0.4 |

7. 사회·복지

- ▶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「보건의료 시설」 과 「사회복지 시설」 을 선호함
- ▶ 미취학 자녀 보유 군민의 절반 이상은 보육기관을 통해 보육함
- ▶ 보육방법에 대한 불만도는 매우 낮음
- ▶ 군민 10명 중 7명은 노후에 「부부 둘이서」 살기를 희망함
- ▶ 향후 늘려야 할 주된 복지서비스는 「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」 와 「노인돌봄종합서비스」 로 나타남
- ▶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「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」 을 가장 선호함
- ▶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 1순위는 「건강문제」 , 2순위는 「경제적인 어려움」 으로 나타남

| [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] | [노인들이 겪는 어려움]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단위: %) | (단위: %) |
|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34.6 | 경제적인 어려움 33.7 |
|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13.5 |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1.3 |
|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1.0 | 소일거리 없음 6.8 |
|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0.9 | 건강문제 43.7 |
|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6.8 | 외로움, 소외감 6.8 |
| 장애인 돌봄 및 재활서비스 2.6 |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0.3 |
| 가사간병 재활서비스 10.5 |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1.1 |
| |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1.6 |
| | 노인복지 3.4 |

8. 주거·교통

- ▶ 군민 7명 중 1명은 「이주의향 있다」 라고 응답함
- ▶ 주된 이주 희망이유로는 「직장 및 일자리」 와 「문화생활편의시설」 로 나타남

| [이주 의향 유무] | [이주하고 싶은 이유]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단위: %) | (단위: %) |
| | 주택문제 14.5 |
| | 교육환경 16.2 |
| | 직장 및 일자리 25.2 |
| | 자연환경 10.4 |
| | 문화생활편의시설 19.7 |
| |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10.7 |
| | 예전에 살던 곳이라서 0.9 |

9. 여가·문화

- ▶ 군민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·예술·체육활동은 「영화감상」 과 「자연,문화재 탐방」 으로 나타남
- ▶ 관광지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「자연 및 풍경감상」, 관광지에 대해 가장 만족한 점은 「자연경관」 으로 나타남
- ▶ 군민의 2명 중 1명은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함

| [문화·예술·체육활동 참여율 및 횟수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(단위: %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없음 57.2 | 참여 42.8 | 38.5 | 주 1회 이상 | 없음 54.2 | 참여 45.8 | 19.9 | 주 1회 이상 | 3.6 | 19.9 | 11.5 | 주 1회 이상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월 1-4회 | 14.2 | 월 1-4회 | 35.6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6-11회 | 50.1 | 연 6-11회 | 18.0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2-5회 | 25.1 | 연 2-5회 | 18.0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1회 | 25.1 | 연 1회 | 18.0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없음 88.7 | 참여 11.3 | 37.5 | 주 1회 이상 | 2.1 | 8.2 | 9.9 | 주 1회 이상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월 1-4회 | 37.5 | 월 1-4회 | 8.2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6-11회 | 41.1 | 연 6-11회 | 56.0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2-5회 | 41.1 | 연 2-5회 | 56.0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연 1회 | 41.1 | 연 1회 | 56.0 | | | | |

10. 안전

- ▶ 군민의 2명 중 1명은 안전성에 대해 「안전하다」 라고 생각함
- ▶ 군민의 5명 중 4명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, 기초질서 미준수의 가장 큰 이유는 「법을 지키면 손해 볼 것 같아서」 라고 생각함

| [야간에 대한 안전성] | | [불안한 원인] |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(단위: %) | | (단위: %) | |
| 매우 안전하다 | 16.2 | | |
| 비교적 안전하다 | 44.1 | | |
| 보통이다 | 23.6 | | |
| 비교적 불안하다 | 12.8 | | |
| 매우 불안하다 | 3.3 | | |

11. 공동체와 사회참여

- ▶ 군민 대다수는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고, 도로명주소의 주된 사용분야는 「배송관련」 으로 나타남
- ▶ 전라남도 도정, 군정 정보의 주된 습득 수단은 「TV」 와 「주변 사람들」 로 나타남
- ▶ 군민 2명 중 1명은 SNS를 이용하고, 주된 이용 SNS는 「카카오토티」 와 「밴드」 로 나타남
- ▶ 절반 이상의 군민은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짐
- ▶ 군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.8점으로 나타남

| [도로명 주소 인지여부 및 사용여부와 주된 사용분야]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| | (단위: %) | |
| 모른다 8.0 | 사용한적없다 10.1 | 8.6 | 1.7 물건구매 음식배달 길 찾기 회원가입 배송관련 민원업무 |
| | | 7.2 | |
| | | 7.4 | |
| | | 47.7 | |
| | | 1 | |
| | | 1 | |
| | | 1 | |
| 알고있다 모른다 | | | |

12. 장성군 특성 문항

- ▶ 어린 연령층일수록 관외지역에서 소비가 증가함
- ▶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「특색 있는 직매장 운영」 이 필요함
- ▶ 광주인근권 귀농·귀촌인들은 「지역주민과 인간관계 형성」 이 필요함
- ▶ 80% 이상의 군민들이 음식점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임

| [연령별 소비 활동 지역] | | | [농특산물 판매 정책]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(단위 : %) | | | (단위 : %) | |
| 15 - 29세 | 61.3 | 38.7 | 특색 있는 직매장 운영 | 51.5 |
| 30 - 39세 | 73.6 | 26.4 | 백화점 전문코너 운영 | 5.8 |
| 40 - 49세 | 77.4 | 22.6 |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| 29.8 |
| 50 - 59세 | 80.5 | 19.5 | 전자상거래 활성화 | 10.4 |
| 60세 이상 | 86.8 | 13.2 | | |
| 65세 이상 | 88.3 | 11.7 | | |
| 장성군 관외지역 | | | | |

| [귀농·귀촌인을 위한 정책] | | [연령별 희망일자리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]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(단위 : %) | | (단위 : %) | | |
| 지역주민과 인간관계 형성 지원 | 31.3 | 15 - 29세 | 32.1 | 67.9 |
| 주거지 정보 제공 및 지원 | 18.7 | 30 - 39세 | 53.2 | 46.8 |
| 농어촌 정착 프로그램 제공 | 21.2 | 40 - 49세 | 62.9 | 37.1 |
| 일거리 정보 제공 및 지원 | 28.0 | 50 - 59세 | 55.1 | 44.9 |
| | | 60세 이상 | 27.3 | 72.7 |
| | | 65세 이상 | 22.7 | 77.3 |

- ▶ 대중교통에 대해 장성 군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함
- ▶ 희망일자리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짐
- ▶ 연령층에 따라 구직 경로가 변화함
- ▶ 군민들은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

| [구직 경로] | | [연령별 의료서비스 만족도] 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(단위 : %) | | (단위 : %) | | | |
| 지인 | 17.8 | 15 - 29세 | 21.7 | 49.1 | 21.2 |
| 관공서 | 36.7 | 30 - 39세 | 27.0 | 27.1 | 44.3 |
| 인터넷 | | 40 - 49세 | 36.7 | 36.9 | 23.0 |
| 채용정보 | 28.8 | 50 - 59세 | 37.8 | 41.7 | 18.4 |
| 대중매체 | 12.5 | 60세 이상 | | 62.0 | 27.3 |
| | | 65세 이상 | | 62.3 | 27.1 |
| | | | 매우 만족 | 약간 만족 | 보통 |
| | | | | | 약간 불만족 |
| | | | | | 매우 불만족 |

- ▶ 군민들의 주된 건강관리 방법은 「운동」 으로 나타남
- ▶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호함
- ▶ 군민 대다수가 군립도서관을 활용하지 않음

| [건강 관리] | | [지역별 군립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이유]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(단위 : %) | | (단위 : %) | | |
| 정기적 병원 건강 검진 15.1 | 기타 2.2 | 11.0 | 20.6 |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|
| 목욕, 사우나 7.6 | 운동 29.8 | 47.9 | 59.9 | 도서관이 집에서 멀다 |
| 보약 또는 영양제 13.0 | 담배, 술 등 절제 10.9 | 70.5 | 61.6 | 개관 시간이 짧다 |
| 식사 조절 21.6 | | 37.5 | 30.1 |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|
| | | | | 읽을만한 책이 없다 |
| | | 중부권 | 북부권 | 서부권 |
| | | | | 광주인근권 |

- ▶ 책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「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」이 필요함
- ▶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함

| [책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] | | [인구 증가 정책]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단위 : %) | | (단위 : %) | |
| 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36.3 | | 귀농 귀촌 지원 사업 확대 20.7 | |
| 다양한 독서모임 15.2 | |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41.4 | |
| 독서교육, 독서 프로그램 확대 20.5 | | 명문고등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 6.3 | |
| 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12.5 | | 주거환경 개선 15.1 | |
| 독서프로그램 홍보 안내 8.8 | | 출산장려 시책 추진 12.6 | |
| | | 전입지원 시책 2.9 | |

- ▶ 지역축제에 대한 장성 군민들의 참여율이 높음

| [지역축제 참여 여부 및 참여한 축제]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(단위 : %) | | |
| | 5.0 | 고로쇠축제 |
| | 31.9 | 노란꽃잔치 |
| 없다 24.9 | 11.7 | 축령산 산소축제 |
| 있다 75.1 | 20.5 | 백양단풍 축제 |
| | 30.9 | 홍길동축제 |

- ▶ 장성군 대표축제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「노란꽃잔치」로 나타남
- ▶ 옐로우시티에 대해 장성 군민들은 높은 인지도를 보임
- ▶ 옐로우시티 지역의 발전에는 「자연친화적 경관 조성」이 필요함
- ▶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한 「주민소득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유통」 분야 확대가 필요함

| [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야할 축제] | [옐로우시티 인지도] |
|---|--|
| (단위 : %) | (단위 : %) |
| <p>고로쇠축 제</p> <p>노란꽃잔치 37.3</p> <p>홍길동축제 29.6</p> <p>축령산 산소축제 9.0</p> <p>백양단풍축제 22.9</p> <p>1.3</p> | <p>4.1</p> <p>21.7</p> <p>30.6</p> <p>43.6</p> <p>아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</p> <p>조금 알고 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</p> |

- ▶ 대부분의 군민들은 향후 생활여건이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함
- ▶ 장성 군정의 복지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

| [향후 장성군 생활여건 상황] | [군정에 대한 만족도-복지] |
|---|---|
| (단위 : %) | (단위 : %) |
| <p>매우 좋아질 것이다 12.6</p> <p>다소 좋아질 것이다 58.4</p> <p>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22.3</p> <p>다소 나빠질 것이다 1.7</p> <p>매우 나빠질 것이다 0.5</p> <p>잘 모르겠다 4.4</p> | <p>복지</p> <p>4.4 0.7 15.2</p> <p>43.5</p> <p>36.3</p> <p>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</p> <p>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</p> |

